



패션 디자이너 변지유가 꾸민 '라운드 테이블'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의상도 화려했다

지난 6일 밤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며진 2012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는 또 하나의 '불거리' 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감운태 이사장을 비롯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응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 조호원 광주시의회 의장,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2013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총감독(2010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등 5명이 '맞춰 입은' 의상이었다.

블루와 핑크계열의 화려한 색상과 남자 한복의 막고자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

가 어우러진 '아트웨어'(art wear)를 보는 듯 했다.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대회 주제에 맞춘 유망 디자이너의 '작품'을 재단 이사장과 예술감독들이 입고 개막식에 참석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마치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배우들이 저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식 의상은 이 지역 패션 디자이너 변지유씨(변지유 부띠끄 대표·사진)가 맡았다.

재단의 빼듯한 개막 일정으로 15일 만에 작

품을 제작해야 했다는 변씨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좀 더 새롭고 기발한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면서 "개막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의상의 전체 컨셉은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주제인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자유와 평등, 소통과 생장을 추구하는 전시주제에 맞춰 등근 원형 디자인에 대회 공식포스터의 메인 컬러인 붉은 색과 핑크색의 자수로 표현했어요. 남자 한복의 막고자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은 현대미술의 축제인 비

엔날레와 우리의 전통문화가 만나는 소통의 미학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씨는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이 깊다. 지난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특별행사로 열린 국제미술의상전에 참가해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패션아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지난해에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씨와 함께 '웃깃에 여미는 바람'을 주제로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특별기념전을 개최해 손으로 굽게 박을 짚은 자수와 로맨틱한 디테일, 천연 염색의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와 세풀리 패션학교를 졸업한 변씨는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밀라노 컬렉션, 서울패션위크, 천연염색쇼 등에 참가하는 등 지역의 대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금화여성회 장애인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변씨는 매년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특별 할인행사'를 열고 수익금을 장애인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서일권 31사단 무안대대장 오토바이 사고 구조

육군 대대장이 야간 순찰 도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무안대대 대대장 서일권(42·사진) 중령. 서 중령은 지난 5일 밤 11시30분께 해안경계작전지역을 순찰하던 중 무안군 현경면 광산리 현경교차로 부근 도로 한가운데 부숴진 오토바이 1대와 운전자를 발견했다.

서 중령은 119에 신고하는 한편 운전자 박모(46)씨를 안전시킨 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병과 함께 야광봉과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차량 접근을 통제하며, 박씨를 보호했다.

그는 "박씨는 갓길에 주차돼 있던 트랙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쳐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며 "2차 사고가 필연적이라는 생각에 급히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옮겨진 박씨는 바로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

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데다 핸드폰까지 사라져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다"며 "사고 현장에 가로등도 없고 야간에는 차량이 과속을 하는 곳이라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 서 중령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 초청 '괜찮아...' 북콘서트



광주 대각사 주지 퇴허사(도산) 스님 초청 북콘서트가 지난 6일 광주대 호심관에서 열렸다.

퇴허사 스님은 최근 30년간 포교 활동을 하며 느꼈던 이야기를 담은 책 '괜찮아, 괜찮아 질 거야'를 평했다.

새로운 정신문화 운동인 '칭찬합시다-삼마(三馬)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한 퇴허사 스님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삶의 지침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 등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이야기 손님으로는 이정재(전 광주교육대 총장), 류한호(광주대 교수)씨 등이 참석했으며 범능스님(불자 주지)의 공연도 있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

60~70년대 트로트 황금 시대 주역

목포 출신 원로가수 조미미씨 별세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른 가수 조미미(본명 조미자·사진)씨가 9일 오전 11시 구로구 오류동 자택에서 간암으로 별세했다.享年 65세.

조씨는 1960~70년대 트로트 황금 시대의 주역이었다.

1947년 목포 출생인 그는 1965년 동아방송 주최 민요가수 선발 콩쿠르인 '가요백일장'에서 김세례나, 김부자 씨와 함께 발탁되며 데뷔했다.

1965년 데뷔곡 '떠나는 목포항'을 발표한 후 '바

다가 육지라면' '서산갯마을' '면에서 오신 손님' '단골손님' '서귀포를 아시나요' 등의 히트곡을 내며 나훈아와 오아시스로드 전속 가수로 1970년대 음악계를 풍靡하였다.

당시 구김살 없는 미소와 고운 외모를 자랑한 고인은 한때 동향인 목포 출신 인기 가수 남진 씨와 두터운 친분으로 화제가 됐다. 이 무렵 남진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노래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를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3년 6월 당시 재일교포 사업가인 안성기 씨와 서울에서 결혼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틈틈이 귀국해 1976년 '연락선' 등을 발표하며 MBC 10대 가수에도 선정

됐다.

한동안 일본에서 생활한 고인은 2010년 귀국해 그해 KBS '가요무대' 25년 특집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서 씨는 "고인은 1970년대 통기타 음악이 거세게 일던 포크 시대에 이미자, 하춘화 씨 등과 함께 트로트 음악 계보를 이끈 가수"라며

"2010년 일본에서 귀국해 고인과 인터뷰할 당시 오랫동안 그리웠던 팬들을 다시 만나는 게 설레고 멀린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대한가수협회 태진아 회장도 "불과 한두 달 전에 '가요무대'에 함께 섰는데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 서대문, 동대문, 영등포 등지 극장소 무대에서 자주 뛴 선배로 '대한가수협회' 이끌어가느라 애쓴다'고 격려해주던 따뜻한 선배였다"고 기억했다.

고인의 빈소는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이다. /연합뉴스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 전남 태풍피해 농가 점검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 이사는 태풍 '불라벤'과 '렌'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을 지난 8일 방문해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차질없고 조속한 피해 지원책 시행을 지시했다.

김 대표는 함평군 순불면 벼백수 피해현장을 비롯해 영광군 양산면 파포리카농장, 곡성군 옥과면 낙파(사과) 현장, 담양군 멜론 시설하우스 피해현장을 두루 점검했다.

피해현장에 동행한 조영조 전남농협본부장은 "21개 시·군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일손돕기와 각종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 임직원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태풍 피해복구 일손돕기 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광주 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김재봉), 임곡농협(조합장 박경수) 임직원 100여명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에서 태풍 피해복구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승덕고, 중3 학생 대상 '창의능력 경시대회'



지율형 사립고인 승덕고등학교(교장 박판우)가 최근 교내에서 주최한 '제1회 창의능력 경시대회'에서 광주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광주공항, MICE산업 3대 대표기관과 협약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종성)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재)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지역 마이스(MICE) 산업 3대 대표기관과 각각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통무술 축제 참가 선수단 5·18 민주묘지 참배



9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장 기념 2012 전국 생활체육 전통무술 축제에 참가한 선수 600여명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코레일 광주본부, F1코리아 입장권 판매 협약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이대수)는 최근 F1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상훈(이클린치과 원장)·김종석(申忠 대표)·김완평(공무원)·황태종(광주대 비서실장)씨·방부상(방인 10월 그린장례식장 209호 062-250-4409).

▲정구상씨 별세 도임(생존복지 어린이집 원장)·문영기(기아차 차량 정보개발팀 차장)·안숙(서울대 병원)·대영(자영업)씨 부친상(부친상 김정구(영호이 전무이사)·김기정(기장구 301호 061-242-7000).

부음

▲이은숙씨 별세 회주(자영업)·경자·옥희·현옥·선옥(서울 강남종교사)·영수(광주 주월중교사)씨 부친상(부친상 김정구(영호이 전무이사)·김기정(기장구 301호 061-242-7000).

謹 삼가 故人の冥福을 뵙니다弔	
故 손제 린(여/85세)	故 이철근(남/73세)
子/子婦 : 민근관 / 김명희, 김준 / 女婿 : 민 순 / 이동제, 순남 / 문민진, 순희 / 심재만 • 병신 : 201호 • 장지: 화순이양	子/子婦 : 이경호 / 김현자, 영식 / 차지민 영규 / 김운희 • 병신: 9월 10일 • 연락처: 227-4381
故 최경선(남/58세)	故 박현아(여/58세)
子/子婦 : 최근월 / 윤상희 • 병신: 101호 • 장지: 영락공원	夫 : 백민석 子 : 백정식 • 병신: 9월 11일 • 연락처: 227-1386
미 음 까지 편 안락 금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화족

▲정광희·박예희씨 장남 종규군 이우수(광주시 남구 사회복지국 장)·김소춘씨 장녀 윤심양=15일(토) 낮 12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계룡스�플루 무궁화홀 042-602-1410.

▲윤홍규·이영옥씨 장남 바로군 박종희(남광주농협 상임이사)·이현화씨 장녀 윤심양=15일(토) 낮 12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계룡스�플루 무궁화홀 042